

행안부 인구감소 통합지원 선정

전북도, '사람살기 좋은 성산별곡' 김제·'로컬푸드 공동체 구축' 임실 등 2곳

전북도는 저출산, 고령화, 청년층의 '지역 엑소더스' 등에 따른 지역공동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정책 통합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는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는 지자체 대상으로 '2018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했다.

총 61개 지자체가 신청하여 서면심사(5.14), 현장평가(6.12), 발표심사(6.28)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전국 11개 지자체중 전북도에 2개소가 선정

되는 성과를 거뒀다.

전북도내에서는 김제시와 임실군이 저출산 고령화 및 청년인구 유출 등 인구구조 변화와 정주여건 개선, 인구유출 억제, 지역경제활성화 등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역발전 정책에 높은 호응을 받아 이번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김제시는 '활력충전!! 사람살기 좋은 성산별곡'이란 주제로 성산지구 내 낡고 험한 건축물을 정비하여 북카페, 쉼터 등 공동체 나뉘터를 만들고 청년창업, 실습 등 마을 공동화

업장을 조성하여 인구유출 방지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제안을 했다.

임실군은 전국 최고 관광체험지인 치즈테마파크에 관광객(연 300만명)을 대상으로 청정자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로컬푸드판매장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으로 '걱정없이 농사지어 희망을 파는 행복한 로컬푸드 공동체 구축' 한다는 제안을 했다.

이번 인구감소 통합지원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전북연구원과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등 사업 전반에 대해 타당성, 효과성 등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했다.

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등 사업 전반에 대해 타당성, 효과성 등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했다.

전북도는 이번에 선정된 2개 지역에 대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민·관 협업을 통해 추진해 나아갈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인구급감과 지역 쇠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청년인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등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인구유출 방지 및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며 "앞으로 전북도에 저출산 고령화 및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 올 하반기 인사 명단

◇ 실·국장 승진, 부단체장 내정



강승구
도민안전실장



구형보
복지여성보건의료국장



이용민
건설교통국장



김양원
전주부시장



이승복
군산부시장



박철우
익산부시장



김인태
정읍부시장



김동규
남원부시장



전대식
김제부시장



문원영
원주부군수



윤여일
무주부군수



최성웅
진안부군수



신달호
정수부군수



노홍래
순창부군수



정도진
고창부군수



전병순
부안부군수

◇ 실·국장급 전보

▲농축수산물품국장 최재용(기획관)
▲환경녹지국장 김용만(정읍 부시장)
▲의회사무처장 한준수(군산 부시장)
▲총무과 이지성(의회사무처장)

◇ 과장급 승진

▲예산과 재원조정팀장 김종필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장 라태일 ▲지역정책과 건설행정팀장 이경진 ▲세정과 과표심사팀장 장운희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팀장 장형섭 ▲정무기획과 자원봉사팀장 지충렬 ▲새만금개발과 새만금기획팀장 차주하 ▲축산과 축산진흥팀장 한일수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팀장 김정주 ▲항만공항하천과 철도공항팀장 김중혜 ▲항만공항하천과 항만팀장 최정일 ▲문화유산과 문화재보존팀장 유용 ▲동물방역과 질병관리팀장 이성재 ▲해양수산과 어촌관광팀장 전병권 ▲물환경관리과 수질보전팀장 김호주 ▲농업기술원 농식품개발과 권석주 ▲농업기술원 허브시험장장 김주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과 이성구

◇ 팀장급 승진

▲예산과 운영속 ▲일자리경제정책

관 심미혜 ▲새만금개발과 양삼봉 ▲인권센터 양유정 ▲안전정책관 이경순 ▲체육정책과 이미숙 ▲사회복지과 이정탁 ▲기획관 이혜은 ▲정무기획과 장병규 ▲공무원교육원 장재영 ▲농업정책과 정책관 ▲지역정책과 체영민 ▲자치행정과 체종우 ▲총무과 한승룡 ▲회계과 박병민 ▲세정과 강원양 ▲산림녹지와 김병문 ▲교통물류도로과 김경완 ▲자연재난과 김남진 ▲지역정책과 배희곤 ▲감사관 양희문 ▲주택건축과 김용수 ▲안전정책관 이상철 ▲동물방역과 이재욱 ▲보건의료과 허미나 ▲해양수산과 김정열 ▲해양수산과 김형균 ▲해양수산과 채중석 ▲수산업진흥연구소 황강성 ▲새만금수질개선과 정현준 ▲물환경관리과 최지선 ▲회계과 이영노 ▲회계과 김성국 ▲감사관 서영민 ▲농업기술원 농식품개발과 송은주 ▲농업기술원 농식품개발과 유영진 ▲농업기술원 원예산업과 이진재 ▲보건환경연구원 먹는물검사과 박수 ▲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최윤희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준수해야”

전주시보건소, 해산물 섭취 등 주의 당부

전주시보건소(소장 정병호)는 지난 6월 인천에서 비브리오패혈증 첫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주시민의 해산물 섭취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비브리오패혈증은 주로 어패류 섭취 또는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에 의해 감염되며, 매년 6월부터 10월 사이에 발생한다.

비브리오패혈증에 걸리면, 급성 발열과 오한, 구토, 복통, 설사, 하지부종, 수포, 궤양, 괴사 등의 증상을 보인다.

특히, 간 질환자와 알콜중독자,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며 치사율이 50%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어패류 충분히

히 익혀 먹기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기 △어패류 보관시 5℃ 이하로 저온 보관하기 △섭취 시 85℃ 이상 가열처리하기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은 후 섭취하기 등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어패류 섭취 후 발열과 오한, 구토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 허가 개시

도내 624대 접수... 전북도, 절차 진행키로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 신청(1차)에 전북도내에는 총 624대가 접수되어 신규 허가 절차를 진행한 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공급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는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운송사업자와 전승운송 계약을 체결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허가절차는 택배운송사업자와 전승운송계약을 체결한 자가 허가 신청서를 택배회사(본사)에 제출하면 택배회사에서는 전국 신청서 취합 및 최종 신규허가 대상자를 한국통합물류협회에 제출하고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전승계약 등 구비서류 확인 후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시·군에서는 신청서 검토 및 각 개별별 추가서류를 제출받아 심사 후 허가를 진행한다.

허가 시행 공고일(2018.5.11.)에 일반 개별용달 허가를 가지고 있는 자이거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

기준」 고시일(2018.1.8) 2년 이전(2016.1.9.)부터 신청일까지 택배 운송을 담당하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과잉 공급 상황에서 택배용 차량을 제외한 화물차에 대해서는 신규허가가 제한되어 있는 만큼 택배용 화물자동차가 택배 이외의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20일, 3차 허가취소 등의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이번 신규허가에 따라 그동안 영업용 택배차량의 허가가 제한되어 영업용 차량을 확보하지 못해 불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상시 단속 위험에 노출되어 왔던 택배종사자에게 안정적인 영업여건 조성 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익산이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류갑희) 종합분석검정센터가 익산시 송학동으로 이전했다.

국내 분석시험센터의 특장점을 벤치마킹해 신속한 분석검정시험센터는 흑폐지 판별이 가능한 돌연변이 분석기(Pyrosequencing) 및 고효율유전자분석기(EPI) 등 최신의 유전자 분석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다.

신축된 종합분석검정센터는 1만6849㎡ 규모의 공간에 농자재·농식품 등 첨단 분석시설을 갖춘 분석시험센터 1개동과 동력성능시험과 안전시험 검정 등이 가능한 글로벌 수준의 농기계검정센터 3개동과 농기계 아카데미를 구비하고 있다.

특히 재단 종합분석검정센터는 연간 7만점 이상의 빠르고 정확한 분석·검정이 가능해졌으며, 이날 15일 까지 시설 및 장비 등 시운전을 통해 최고의 분석검정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익산=우병희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